

「제15차 NEAR 총회」 관련 보도자료 스크랩

2025.6.16.(월)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매일신문	경북도, 동북아 연대 강화...‘NEAR총회’서 국쟁협력 외교 홍보	
2	신문	경상매일신문	道, NEAR 현·차기 의장국 대표와 ‘미래 협력 설계’	
3	신문	일간경북신문	중국 NEAR 총회서 APEC·경북방문의 해 홍보	
4	신문	경안일보	“APEC 성공 기원!”... NEAR 총회서 동북아 협력 견인	
5	신문	세명일보	경북도, 제15차 NEAR 총회 참석	
6	인터넷	뉴시스	경북도, 中 라오닝서 활발한 지방외교... NEAR 총회 참가	
7	인터넷	데일리경북뉴스	경북도, 제15차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총회 참석	
8	인터넷	대구일보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 제15차 NEAR 총회 참석	
9	인터넷	메트로	경북도, 제15차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총회 참석	
10	인터넷	국제뉴스	경북도, 제15차 NEAR 총회 참석...동북아 지방외교 교류 박차	
11	인터넷	경북뉴스	경북도, 제15차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총회 참석	
12	인터넷	뉴데일리	경북도, 제15차 NEAR 총회 참석	
13	인터넷	일요신문	경북도, ‘제15차 NEAR’ 총회 참석 ...교류·협력	
14	인터넷	대경일보	경북도, 제15차 NEAR 총회 참석	
15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경북도, 제15차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총회 참석	
16	인터넷	문경일보	경북도, 제15차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총회 참석	

경북도, 동북아 연대 강화... 'NEAR 총회'서 국제협력 외교 행보

양승진 기자 promotion@jmaeil.com

매일신문 입력 2025-06-15 14:56:14 수정 2025-06-15 14:58:27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지사성장 회의,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지난 1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랴오닝성을 방문해 제15차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총회 참석과 지방정부 간 강화 등에 나섰다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7개 91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 동북아 지역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 연합체다. 이번 총회에는 33개 회원 지방정부 대표와 한일중 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주선양한국총영사 등 140여명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졌다.

이번 NEAR 총회는 지방정부 대표단 단체 접견, NEAR 사무국 주최 '새로운 국제정서 하 동북아 지방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지사·성장 3 공식 개막식 등 순으로 진행됐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설립 30주년을 앞둔 NEAR는 정회원 6개국 82개, 특별회원 1개, 준회원 3개국 3개, 옵서버 등 9개국 91개가 가입한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대표적인 다자교류협력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NEAR 발전에는 사무국 운영 지원하는 경북도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석희 경북도 관계대사는 총회에서 NEAR의 발전 방향, 경북도의 역할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일정 중 경북도는 선양 지역 교민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국제교류의 가교로서 활약해 온 교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 라오 당서기가 주재한 '국제우호도시대회' 환영 만찬에 참석해 다양한 국가의 지방정부 대표들과 교류하고 협력 의지도 공유했다.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는 "경북은 NEAR 창설을 주도한 초대 의장국으로서 앞으로도 동북아 지방정부 간 연대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道, NEAR 현·차기 의장국 대표와 ‘미래 협력 설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총회 참석...동북아 교류 논의
지방정부 간 연대 강화 ‘앞장’
선양서 **경북관광콘텐츠** 소개



경북도는 제15차 NEAR 총회 참석 및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강화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라오닝성을 공식 방문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제15차 NEAR 총회 참석 및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강화를 위해 지난 11~13일까지 중국 라오닝성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강석희 국제관계대사가 경북도를 대표해 참석했다.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은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7개국 91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 연합체다.

이번 제15차 총회는 중국 라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렸으며, 33개 회원 지방정부 대표, 한중일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주선양한국총영사) 등 14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졌다.

지난 11일에는 회원 지방정부 대표단의 단체 접견이 열렸고, 이어 왕신웨이

라오닝성장이 주재한 환영 만찬을 통해 총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츠데노프 알렉세이 러시아 부라티야공화국 수반 등 28개 지방정부 대표가 참석했다.

지난 12일 오전에는 NEAR 사무국

최후로 ‘새로운 국제경제 하 동북아 지방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지사·성장 회의가 열렸으며, 강 대사는 한국 대표로 참석해 지방정부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개막식에서는 라오닝성장과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몽

골, 일본, 러시아, 한중일협력사무국(TCS) 대표가 축사를 전했다. 강 대사는 이철우 도지사의 축사를 대독했다.

아울러 강 대사는 이후 진행된 제1차선에 참여해 NEAR의 발전 방향과 경상북도의 역할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과 감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국제교류의 가교로서 활약해 온 교민들의 노고에 감사사를 표했다.

오후에는 강 대사가 선양 K11 쇼핑몰에서 열린 B2C 홍보 행사를 찾아 **경북홍보관**을 둘러보고, 현지 여행사 및 관람객들과 소통하며 **경북**의 관광 콘텐츠를 알렸다.

이러한 저녁에는 라오닝성 당서기가 주재한 ‘국제우호도시대회’ 환영 만찬에 참석해, 다양한 국가의 지방정부 대표들과 교류하고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지난 13일에는 ‘국제우호도시대회’ 본 행사에 참석해 자매·우호도시 대표들과 교류를 이어갔으며, 이어 열린 **경북관광홍보설명회**에서 강석희 국제관계대사는 “중국은 **경북** 관광산업의 핵심 시장”이라며 “특히 동북부 지역을 겨냥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석희 국제관계대사는 “**경북**이 NEAR 발전을 주도한 최대 의장국으로서 앞으로도 동북아 지방정부 간 연대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상수 기자

중국 NEAR 총회에서 APEC·경북방문의 해 홍보

실질 교류↑·협력 기반 강화
의장국 대표들과 공동 모색



경북도는 제15차 NEAR 총회 참석 및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강화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라오닝성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강석희 국제관계대사가 **경북도**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번 제15차 총회는 중국 라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렸으며, 33개 회원 지방정부 대표, 한중일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주선양한국총영사) 등 14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11일에는 회원 지방정부 대표단의 단체 접견이 열렸고, 이어 왕신웨이

라오닝성장이 주재한 환영 만찬을 통해 총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츠데노프 알렉세이

러시아 부라티야공화국 수반 등 28개 지방정부 대표가 참석했다.

12일 오전에는 NEAR 사무국 주최로 ‘새로운 국제경제 하 동북아 지방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지사·성장 회의가 열렸으며, 강 대사는 한국 대표로 참석해 지방정부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이어진 개막식에서는 라오닝 성장과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몽골, 일본, 러시아, 한중일협력사무국(TCS) 대표가 축사를 전했다. 강 대사는 **이철우** 도지사의 축사를 대독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는 동북아지방협력에서 NEAR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더욱 발전을 축원하는 영상 축사를 통해 총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경미기자

“APEC 성공 기원!”... 경북도, NEAR 총회에서 동북아 협력 견인

道, 중국 라오닝성 제15차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총회 참석
NEAR 최대 의장국으로 현·차기 의장국 대표와 공동협력 논의
국제우호도시대회 참가... APEC 정상회의, 경북방문의 해 등 홍보

경북도는 제15차 NEAR 총회 참석 및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강화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라오닝성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강석희 국제관계대사가 **경북도**와 포항시를 대표해 참석했다.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은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7개국 91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 연합체다.

이번 제15차 총회는 중국 라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렸으며, 33개 회원 지방정부 대표, 한중일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주선양한국총영사) 등 14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11일에는 회원 지방정부 대표단의 단체 접견이 열렸고, 이어 왕신웨이 라오닝성장이 주재한 환영 만찬을 통해 총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2일 오전에는 NEAR 사무국 주최로 ‘새로운 국제경제 하 동북아 지방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지사·성장 회의가 열렸으며, 강 대사는 한국 대표로 참석해 지방정부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개막식에서는 라오닝성장과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몽골, 일본, 러시아, 한중일협력사무국(TCS) 대표가 축사를 전했다. 강 대사는 **이철우** 도지사의 축사를 대독했다.

아울러 강 대사는 이후 진행된 제1차선에 참여해 NEAR의 발전 방향과 경상북도의 역할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같은 날, **경북도**는 선양 지역 교민들과 감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국제교류의 가교로서 활약해 온 교민들의 노고에 감사사를 표했다.

오후에는 강 대사가 선양 K11 쇼핑몰에서 열린 B2C 홍보 행사를 찾아 **경북홍보관**을 둘러보고, 현지 여행사 및 관람객들과 소통하며 **경북**의 관광 콘텐츠를 알렸다.

이러한 저녁에는 라오닝성 당서기가 주재한 ‘국제우호도시대회’ 환영 만찬에 참석해, 다양한 국가의 지방정부 대표들과 교류하고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13일에는 ‘국제우호도시대회’ 본 행사에 참석해 자매·우호도시 대표들과 교류를 이어갔으며, 이어 열린 **경북** 관광홍보설명회에서 강석희 국제관계대사는 “중국은 **경북** 관광산업의 핵심 시장”이라며 “특히 동북부 지역을 겨냥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석희 국제관계대사는 “**경북**이 NEAR 발전을 주도한 최대 의장국으로서 앞으로도 동북아 지방정부 간 연대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구동·이성욱 기자 ga779@joqbo.com

경북도, 제15차 NEAR 총회 참석

경북도가 제15차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총회 참석 및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강화를 위해 지난 11~13일까지 중국 랴오닝성을 공식 방문했다. 제15차 총회는 33개 회원 지방정부 대표, 한·중·일협력사무국 등 14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졌다.

11일에는 회원 지방정부 대표단의 단체 접견이 열렸고, 이어 왕신웨이 랴오닝성장관이 주재한 환영 만찬을 통해 총회 일정이 본격 시작됐다. 12일 오전에는 NEAR사무국 주최로 '새로운 국제정세 하 동북아 지방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지사·성장 회의가 열렸다. 이어진 개막식에서는 랴오닝성장관과 NEAR 사무총장 개회사에 이어, 몽골, 일본, 러시아, 한·중·일 협력사무국(TCS) 대표가 축사를 전했다.

같은 날, 경북도는 선양 지역 교민

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국제 교류의 가교로 활약해 온 교민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오후에는 선양 K11 쇼핑예술센터에서 열린 B2C 홍보 행사 경북 홍보관을 둘러보고, 현지 여행사 및 관람객과 소통하며 경북 관광 콘텐츠를 알렸다. 이어진 저녁에는 랴오닝성 당서기가 주재한 국제우호도시대회 환영 만찬에 참석해, 다양한 국가의 지방정부 대표들과 교류하고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13일에는 국제우호도시대회 본 행사에 참석해 자매·우호도시 대표들과 교류를 이어갔으며, 이어 열린 '경북관광 홍보 설명회'에서 강석희 국제관계대사는 "중국은 경북 관광산업의 핵심 시장이며, 동북부 지역을 겨냥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경북도, 中 라오닝서 활발한 지방외교...NEAR 총회 참가

[류상현]



[안동=뉴스시스] 제15차 NEAR 총회가 열리는 중국 라오닝성에서 지난 12일 지사·성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5.06.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스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지난 11~13일 제15차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총회가 열리는 중국 라오닝성을 방문해 활발한 지방외교를 펼쳤다.

이번 방문에는 강석희 국제관계대사가 **경북도**를 대표해 참석했다.

NEAR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7개국 91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 연합체다.

중국 라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린 이번 제15차 총회에는 33개 회원 지방정부 대표, 한중일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과 주선양한국총영사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강 대사는 12일 오전 열린 지사·성장 회의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으며 이어진 개막식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축사를 대독했다.

행사를 준비한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내년 NEAR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이제 NEAR는 정회원 6개국 82개, 특별회원 1개, 준회원 3개국 3개, 옵서버 5개 등 9개국 91개가 가입한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대표적인 다자교류협력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러한 NEAR 발전에는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북도**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경북도**는 선양 지역 교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국제교류의 가교로서 활약해 온 교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오후에는 강 대사가 선양 K11 쇼핑예술센터에서 열린 경북관광 홍보 행사장을 찾아 현지 여행사와 관람객들과 소통하며 경북의 관광 콘텐츠를 알렸다.

13일에는 '국제우호도시대회'에 참석해 자매·우호도시 대표들과 교류를 이어갔다.

경북도는 2023년 10월 라오닝성과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이철우** 도지사가 리러청 라오닝성 성장을 만나 '우호도시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양 지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이어 열린 '경북관광홍보설명회'에서 강 대사는 "중국은 경북 관광산업의 핵심 시장이며, 특히 동북부 지역을 겨냥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는 "경북이 NEAR 창설을 주도한 초대 의장국으로서 앞으로도 동북아 지방정부 간 연대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뉴시스] 강창희 **경북도** 국제관계 대사가 제15차 NEAR 총회가 열리는 중국 랴오닝성에서 지난 12일 열린 지사·성장 회의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해 이철우 도지사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제공) 2025.06.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관련기사 바로가기 

지역 경북도청

경북도, 제15차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총회 참석

등록 2025년06월15일

크게보기

NEAR 초대 의장국 경북도, 현·차기 의장국 대표와 공동협력 논의



▲ 경북도, 제15차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총회 참석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는 제15차 NEAR 총회 참석 및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강화를 위해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랴오닝성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강석희 국제관계대사가 경북도를 대표해 참석했다.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7개국 91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 연합체다.

이번 제15차 총회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렸으며, 33개 회원 지방정부 대표, 한중일협력 사무국(TCS 사무총장, 주선양한국총영사) 등 14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11일에는 회원 지방정부 대표단의 단체 접견이 열렸고, 이어 왕신웨이 랴오닝성장이 주재한 환영 만찬을 통해 총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츠데노프 알렉세이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수반 등 28개 지방정부 대표가 참석했다.

12일 오전에는 NEAR 사무국 주최로 '새로운 국제정세 하 동북아 지방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지사·성장 회의가 열렸으며, 강 대사는 한국 대표로 참석해 지방정부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개막식에서는 랴오닝성장과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몽골, 일본, 러시아, 한중일 협력사무국(TCS) 대표가 축사를 전했고, 강 대사는 이철우 도지사의 축사를 대독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는 동북아지방협력에서 NEAR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더욱 발전을 축원하는 영상 축사를 통해 총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내년 NEAR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이제 NEAR는 정회원 6개국 82개, 특별회원 1개, 준회원 3개국 3개, 옵서버 5개 등 9개국 91개가 가입한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대표적인 다자교류협력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하고, 이러한 NEAR 발전에는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상북도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대사는 이후 진행된 제1세션에 참여해 NEAR의 발전 방향과 경상북도의 역할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같은 날, 경북도는 선양 지역 교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국제교류의 가교로서 활약해 온 교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오후에는 강 대사가 선양 K11 쇼핑예술센터에서 열린 B2C 홍보 행사를 찾아 경북홍보관을 둘러보고, 현지 여행사 및 관람객들과 소통하며 경북의 관광 콘텐츠를 알렸다. 이어진 저녁에는 랴오닝성 당서기가 주재한 '국제우호도시대회' 환영 만찬에 참석해, 다양한 국가의 지방정부 대표들과 교류하고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경북도는 2023년 10월 랴오닝성과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2024년 4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리러청 랴오닝성 성장을 만나 '우호도시 교류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계기로 양 지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13일에는 '국제우호도시대회' 본행사에 참석해 자매·우호도시 대표들과 교류를 이어갔으며, 이어 열린 '경북관광홍보설명회'에서 강석희 국제관계대사는 "중국은 경북 관광산업의 핵심 시장이며, 특히 동북부 지역을 겨냥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는 "경북이 NEAR 창설을 주도한 초대 의장국으로서 앞으로도 동북아 지방정부 간 연대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석희_경상북도관계대사



▲ 임병진_NEAR_사무총장

[황지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저작권자 2015.01.15 © dailydgnews

[댓글보기](#) 0

[댓글쓰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많이 본 종합뉴스

- 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산98번지 야산에서 화재 발생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 제15차 NEAR 총회 참석

문정화 기자 | 승인 2025.06.15 14:42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랴오닝성에서 열린 제15차 NEAR(동북 아시아지방정부연합) 총회에 경북도 대표로 참석해 의장국 대표와 공동협력을 논의하고 2025 APEC 정상회의와 경북방문의 해 등을 홍보했다.

문정화 기자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저작권자 © 대구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 제15차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총회 참석

메트로신문 김준한 기자 | 2025-06-16 08:59:02



12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열린 제15차 NEAR 총회 지사·성장 회의 모습.

경북도는 제15차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총회 참석과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강화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랴오닝성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강석희 국제관계대사가 경북도를 대표해 참석했다.

NEAR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7개국 91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 연합체다.

이번 제15차 총회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렸으며, 33개 회원 지방정부 대표와 한중일협력사무국(TCS), 주선양한국총영사관 등 14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

11일에는 회원 지방정부 대표단의 단체 접견과 왕신웨이 랴오닝성장이 주재한 환영 만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츠데노프 알렉세이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수반 등 28개 지방정부 대표가 참석했다.

12일에는 '새로운 국제정세 하 동북아 지방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지사·성장 회의가 열렸고, 강 대사는 한국 대표로 참석해 지방정부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개막식에서는 이철우 도지사의 축사를 강 대사가 대독했으며,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NEAR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임병진 사무총장은 "NEAR는 내년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정회원 82개 등 총 9개국 91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동북아 대표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했다"며, "이 같은 발전에는 경북도의 운영비 지원 등 적극적인 기여가 컸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어 열린 제1세션에서 NEAR의 발전 방향과 경북도의 역할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같은 날 경북도는 선양 교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의 가고 역할을 해 온 교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강 대사는 선양 K11 쇼핑예술센터에서 열린 B2C 홍보행사를 찾아 경북 홍보관을 둘러보고, 현지 여행사 및 관람객들과 소통하며 경북의 관광 콘텐츠를 직접 소개했다. 이어 열린 랴오닝성 주최 국제우호도시대회 환영 만찬에도 참석해 다양한 국가의 지방정부 대표들과 협력 의지를 나눴다.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랴오닝성과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올해 4월 이철우 도지사가 리러청 랴오닝성 성장을 만나 '우호도시 교류협정'을 체결하며 실질적 협력 관계를 확대해오고 있다.

13일에는 국제우호도시대회 본행사와 '경북관광홍보설명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 대사는 "중국은 경북 관광산업의 핵심 시장"이라며 "특히 동북부 지역을 겨냥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석희 국제관계대사는 "경북이 NEAR 창립을 주도한 초대 의장국으로서 동북아 지방정부 간 연대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경북도, 제15차 NEAR 총회 참석...동북아 지방외교 교류 박차

✎ 김진태 기자 Ⓞ 승인 2025.06.15 11:43

**초대 의장국 자격으로 국제협력 주도...관광·경제 교류 확대 행보도 함께
 2025 APEC 연계 홍보...랴오닝성과 교류협정 기반 협력 확대 추진**

(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상북도가 동북아시아 최대 지방정부 연합체인 NEAR(동북아시아 지방정부연합) 제15차 총회에 참석해 국제 교류 및 지역외교 강화에 나섰다.



(제공=경북도) NEAR지사성장회의 전경

경북도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동북아 다자외교의 축으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기반 마련에도 힘을 보탤다.

총회는 11부터 13일까지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열렸으며,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 7개국 91개 지방정부 중 33개 대표단이 참석했다. 경북도는 초대 의장국 자격으로 강석희 국제관계대사를 파견, 주요 세션과 홍보행사에 참여했다.



(제공=경북도) 임병진 NEAR 사무총장

12일 열린 지사·성장 회의에서 강 대사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지방정부의 연대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NEAR의 기능 강화와 경북의 국제적 책임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개막식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축사를 대독, “경북은 NEAR의 정신과 가치를 공유하며 회원국과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총회는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의 영상 축사로 의미를 더했고,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사무국을 후원해온 경북도의 기여는 NEAR 발전의 기반”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경북도는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선양 내 경북홍보관 운영, 관광설명회 개최, 교민 간담회 등 문화·경제 외교도 병행했다. 선양 K11 쇼핑센터에서는 경북의 K-뷰티·전통문화 콘텐츠 체험 부스를 운영, 지역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혔다.



(제공=경북도)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는 “중국 동북부는 경북 관광의 전략시장”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방한 수요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2023년부터 랴오닝성과의 교류를 강화해왔으며, 2024년 4월 이철우 지사가 직접 리리청 성장을 만나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두 지역 간 실질적인 산업·관광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김진태 기자 n2000@daum.net

경북도, 제15차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총회 참석 NEAR 초대 의장국 경북도, 현·차기 의장국 대표와 공동협력 논의

뉴스팀 기자 / phfat | 입력 : 2025년 06월 15일(일) 09:46



↑↑ 경북도, 제15차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총회 참석

경상북도는 제15차 NEAR 총회 참석 및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강화를 위해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랴오닝성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강석희 국제관계대사가 경북도를 대표해 참석했다.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7개국 91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 연합체다.

이번 제15차 총회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렸으며, 33개 회원 지방정부 대표, 한중일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주선양한국총영사) 등 14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11일에는 회원 지방정부 대표단의 단체 접견이 열렸고, 이어 왕신웨이 랴오닝성장이 주재한 환영 만찬을 통해 총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츠데노프 알렉세이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수반 등 28개 지방정부 대표가 참석했다.

12일 오전에는 NEAR 사무국 주최로 ‘새로운 국제정세 하 동북아 지방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지사·

성장 회의가 열렸으며, 강 대사는 한국 대표로 참석해 지방정부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개막식에서는 랴오닝성장과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몽골, 일본, 러시아, 한중일 협력사무국(TCS) 대표가 축사를 전했고, 강 대사는 이철우 도지사의 축사를 대독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는 동북아지방협력에서 NEAR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더욱 발전을 축원하는 영상 축사를 통해 총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내년 NEAR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이제 NEAR는 정회원 6개국 82개, 특별회원 1개, 준회원 3개국 3개, 옵서버 5개 등 9개국 91개가 가입한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대표적인 다자교류협력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했다”고 하고, 이러한 NEAR 발전에는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상북도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대사는 이후 진행된 제1세션에 참여해 NEAR의 발전 방향과 경상북도의 역할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같은 날, 경북도는 선양 지역 교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국제교류의 가교로서 활약해 온 교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오후에는 강 대사가 선양 K11 쇼핑예술센터에서 열린 B2C 홍보 행사를 찾아 경북홍보관을 둘러보고, 현지 여행사 및 관람객들과 소통하며 경북의 관광 콘텐츠를 알렸다. 이어진 저녁에는 랴오닝성 당서기가 주재한 ‘국제우호도시대회’환영 만찬에 참석해, 다양한 국가의 지방정부 대표들과 교류하고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경북도는 2023년 10월 랴오닝성과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2024년 4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리러칭 랴오닝성 성장을 만나 ‘우호도시 교류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계기로 양 지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13일에는 ‘국제우호도시대회’ 본행사에 참석해 자매·우호도시 대표들과 교류를 이어갔으며, 이어 열린 ‘경북관광홍보설명회’에서 강석희 국제관계대사는 “중국은 경북 관광산업의 핵심 시장이며, 특히 동북부 지역을 겨냥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는 “경북이 NEAR 창설을 주도한 초대 의장국으로서 앞으로도 동북아 지방정부 간 연대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제15차 NEAR 총회 참석

NEAR 초대 의장국 경북도, 현차기 의장국 대표와 공동협력 논의
국제우호도시대회 참가...실질적 교류 확대 및 협력 기반 강화
2025 APEC 정상회의, 경북방문의 해 등 홍보 병행

기사입력 2025-06-15 15:02:06 | 강승탁 기자 | stking12@newdailybiz.co.kr



▲ 경상북도는 제15차 NEAR 총회 참석 및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강화를 위해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랴오닝성을 공식 방문했다.©경북도

경상북도는 제15차 NEAR 총회 참석 및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강화를 위해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랴오닝성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강석희 국제관계대사가 경북도를 대표해 참석했다.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7개국 91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 연합체다.

이번 제15차 총회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렸으며, 33개 회원 지방정부 대표, 한중일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주선양 한국총영사) 등 140여 명이 참석해 활발히 교류하고 협력했다.

11일에는 회원 지방정부 대표단의 단체 접견이 열렸고, 이어 왕신웨이 랴오닝성장이 주재한 환영 만찬을 통해 총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츠데노프 알렉세이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수반 등 28개 지방정부 대표가 참석했다.

12일 오전에는 NEAR 사무국 주최로 '새로운 국제정세 하 동북아 지방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지사·성장 회의가 열렸으며, 강 대사는 한국 대표로 참석해 지방정부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개막식에서는 라오닝성장과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몽골, 일본, 러시아, 한중일협력사무국(TCS) 대표가 축사를 전했고, 강 대사는 이철우 도지사의 축사를 대독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는 동북아지방협력에서 NEAR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더욱 발전을 축원하는 영상 축사를 통해 총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내년 NEAR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이제 NEAR는 정회원 6개국 82개, 특별회원 1개, 준회원 3개국 3개, 옵서버 5개 등 9개국 91개가 가입한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대표적인 다자교류협력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하고, 이러한 NEAR 발전에는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상북도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 대사는 이후 진행된 제1세션에 참여해 NEAR의 발전 방향과 경상북도의 역할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같은 날, 경북도는 선양 지역 교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국제교류의 가교로서 활약해 온 교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오후에는 강 대사가 선양 K11 쇼핑예술센터에서 열린 B2C 홍보 행사를 찾아 경북홍보관을 둘러보고, 현지 여행사 및 관광객들과 소통하며 경북의 관광 콘텐츠를 알렸다. 이어진 저녁에는 라오닝성 당서기가 주재한 '국제우호도시대회' 환영 만찬에 참석해, 다양한 국가의 지방정부 대표들과 교류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

경북도는 2023년 10월 라오닝성과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2024년 4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리러칭 라오닝성 성장을 만나'우호도시 교류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계기로 양 지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13일에는 '국제우호도시대회' 본행사에 참석해 자매·우호도시 대표들과 교류를 이어갔으며, 이어 개최된 '경북관광홍보설명회'에서 강석희 국제관계대사는 "중국은 경북 관광산업의 핵심 시장이며, 특히 동북부 지역을 겨냥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는 "경북이 NEAR 창설을 주도한 초대 의장국으로서 앞으로도 동북아 지방정부 간 연대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승탁 기자 (stking12@newdailybiz.co.kr)

이 기사 주소: <https://tk.newdaily.co.kr/site/data/html/2025/06/15/2025061500066.html>



경북도, '제15차 NEAR' 총회 참석 ...교류·협력

온라인 기사 2025년06월15일 11시34분

'2025 APEC 정상회의' 등 홍보 병행

- NEAR 초대 의장국 경북도, 현·차기 의장국 대표와 공동협력 논의
- 국제우호도시대회 참가...실질적 교류 확대 및 협력 기반 강화

[일요신문] 경북도는 제15차 NEAR 총회 참석 및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강화를 위해 11~13일 중국 랴오닝성을 공식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강석희 국제관계대사가 경북도를 대표해 참석했다.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7개국 91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 연합체다.



경북도는 제15차 NEAR 총회 참석 및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강화를 위해 11~13일 중국 랴오닝성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강석희 국제관계대사가 경북도를 대표해 참석했다. 사진=경북도 제공

이번 제15차 총회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렸으며, 33개 회원 지방정부 대표, 한중일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주선양한국총영사) 등 140여 명이 함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11일에는 회원 지방정부 대표단의 단체 접견이 열렸고, 이어 왕신웨이 랴오닝성장이 주재한 환영 만찬을 통해 총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츠데노프 알렉세이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수반 등 28개 지방정부 대표가 참석했다.

12일 오전에는 NEAR 사무국 주최로 '새로운 국제정세 하 동북아 지방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지사·성장 회의가 열렸으며, 강 대사는 한국 대표로 참석해 지방정부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개막식에서는 랴오닝성장과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몽골, 일본, 러시아, 한중일협력사무국(TCS) 대표가 축사를 전했다.



강석희 경상북도관계대사. 사진=경북도 제공

강 대사는 이철우 지사의 축사를 대독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는 동북아지방협력에서 NEAR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더욱 발전을 축원하는 영상 축사를 통해 총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내년 NEAR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이제 NEAR는 정회원 6개국 82개, 특별회원 1개, 준회원 3개국 3개, 옵서버 5개 등 9개국 91개가 가입한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대표적인 다자교류협력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했다"라며, 이러한 NEAR 발전에는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북도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사는 이후 진행된 제1세션에 참여해 NEAR의 발전 방향과 경북도의 역할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같은날 경북도는 선양 지역 교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국제교류의 가교로서 활약해 온 교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오후에는 강 대사가 선양 K11 쇼핑예술센터에서 열린 B2C 홍보 행사를 찾아 경북홍보관을 돌

러보고, 현지 여행사 및 관람객들과 소통하며 경북의 관광 콘텐츠를 알렸다.

이어진 저녁에는 라오닝성 당서기가 주재한 '국제우호도시대회' 환영 만찬에 참석해, 다양한 국가의 지방정부 대표들과 교류하고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경북도는 2023년 10월 라오닝성과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2024년 4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리러청 라오닝성 성장을 만나 '우호도시 교류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계기로 양 지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13일에는 '국제우호도시대회' 본행사에 참석해 자매·우호도시 대표들과 교류를 이어갔으며, 이어 열린 '경북관광 홍보설명회'에서 강석희 국제관계대사는 "중국은 경북 관광산업의 핵심 시장이며, 특히 동북부 지역을 겨냥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는 "경북이 NEAR 창설을 주도한 초대 의장국으로서 앞으로도 동북아 지방정부 간 연대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이 기사 주소: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4275

경북도, 제15차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총회 참석

✎ 김대호 기자 ㉠ 승인 2025.06.15 08:29

초대 의장국 경북, 중국 랴오닝성서 실질교류 확대 협력 논의



▲ 임병진 NEAR 사무총장. 경북도 제공



▲ 강석희 경상북도국제관계 대사. 경북도 제공

- 2025 APEC 정상회의, 경북방문의 해 등 홍보 병행 -

경상북도는 제15차 참석 및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강화를 위해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랴오닝성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강석희 국제관계대사가 경북도를 대표해 참석했다.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7개국 91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 연합체다.

이번 제15차 총회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렸으며, 33개 회원 지방정부 대표, 한중일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주선양한국총영사) 등 140여명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11일에는 회원 지방정부 대표단의 단체 접견이 열렸고, 이어 왕신웨이 랴오닝성장이 주재한 환영 만찬을 통해 총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츠데노프 알렉세이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수반 등 28개 지방정부 대표가 참석했다.

12일 오전에는 NEAR 사무국 주최로 '새로운 국제정세 하 동북아 지방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지사·성장 회의가 열렸으며, 강 대사는 한국 대표로 참석해 지방정부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개막식에서는 랴오닝성장과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몽골, 일본, 러시아, 한중일협력사무국(TCS) 대표가 축사를 전했고, 강 대사는 이철우 도지사의 축사를 대독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는 동북아지방협력에서 NEAR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더욱 발전을 축원하는 영상 축사를 통해 총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내년 NEAR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이제 NEAR는 정회원 6개국 82개, 특별회원 1개, 준회원 3개국 3개, 옵서버 5개 등 9개국 91개가 가입한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대표적인 다자교류협력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하고, 이러한 NEAR 발전에는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상북도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대사는 이후 진행된 제1세션에 참여해 NEAR의 발전 방향과 경상북도의 역할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같은 날, 경북도는 선양 지역 교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국제교류의 가교로서 활약해 온 교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오후에는 강 대사가 선양 K11 쇼핑예술센터에서 열린 B2C 홍보 행사를 찾아 경북홍보관을 둘러보고, 현지 여행사 및 관람객들과 소통하며 경북의 관광 콘텐츠를 알렸다. 이어진 저녁에는 라오닝성 당서기가 주재한 '국제우호도시대회' 환영 만찬에 참석해, 다양한 국가의 지방정부 대표들과 교류하고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경북도는 2023년 10월 라오닝성과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2024년 4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리러청 라오닝성 성장을 만나 '우호도시 교류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계기로 양 지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13일에는 '국제우호도시대회' 본행사에 참석해 자매·우호도시 대표들과 교류를 이어갔으며, 이어 열린 '경북관광홍보설명회'에서 강석희 국제관계대사는 "중국은 경북 관광산업의 핵심 시장이며, 특히 동북부 지역을 겨냥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는 "경북이 NEAR 창설을 주도한 초대 의장국으로서 앞으로도 동북아 지방정부 간 연대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호 기자 homigod@naver.com

경북도, 제15차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총회 참석

✎ 최보영 기자 ㉠ 승인 2025.06.16 09:10

- NEAR 초대 의장국 경북도, 현·차기 의장국 대표와 공동협력 논의
- 국제우호도시대회 참가... 실질적 교류 확대 및 협력 기반 강화
- 2025 APEC 정상회의, 경북방문의 해 등 홍보 병행



NEAR지사성장회의 전경 [사진=경북도]

[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최보영 기자] 경북도는 제15차 NEAR 총회 참석 및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강화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랴오닝성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강석희 국제관계대사가 경북도를 대표해 참석했다.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7개국 91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 규모의 지방정부 연합체다.

이번 제15차 총회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렸으며, 33개 회원 지방정부 대표, 한중일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주선양한국총영사) 등 14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뤄졌다.

6월 11일에는 회원 지방정부 대표단의 단체 접견이 열렸고, 이어 왕신웨이 랴오닝성장이 주재한 환영 만찬을 통해 총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츠데노프 알렉세이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수반 등 28개 지방정부 대표가 참석했다.

12일 오전에는 NEAR 사무국 주최로 '새로운 국제정세 하 동북아 지방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지사·성장 회의가 열렸으며, 강 대사는 한국 대표로 참석해 지방정부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개막식에서는 랴오닝성장과 NEAR 사무총장의 개회사에 이어, 몽골, 일본, 러시아, 한중일협력사무국(TCS) 대표가 축사를 전했고, 강 대사는 이철우 도지사의 축사를 대독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는 동북아지방협력에서 NEAR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더욱 발전을 축원하는 영상 축사를 통해 총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내년 NEAR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이제 NEAR는 정회원 6개국 82개, 특별회원 1개, 준회원 3개국 3개, 옵서버 5개 등 9개국 91개가 가입한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대표적인 다자교류협력 국제기구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하고, 이러한 NEAR 발전에는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상북도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대사는 이후 진행된 제1세션에 참여해 NEAR의 발전 방향과 경상북도의 역할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같은 날, 경북도는 선양 지역 교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국제교류의 가교로서 활약해 온 교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오후에는 강 대사가 선양 K11 쇼핑예술센터에서 열린 B2C 홍보 행사를 찾아 경북홍보관을 둘러보고, 현지 여행사 및 관람객들과 소통하며 경북의 관광 콘텐츠를 알렸다. 이어진 저녁에는 랴오닝성 당서기가 주재한 '국제우호도시대회' 환영 만찬에 참석해, 다양한 국가의 지방정부 대표들과 교류하고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경북도는 지난 2023년 10월 랴오닝성과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2024년 4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리러청 랴오닝성 성장을 만나 '우호도시 교류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계기로 양 지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13일에는 '국제우호도시대회' 본행사에 참석해 자매·우호도시 대표들과 교류를 이어갔으며, 이어 열린 '경북관광홍보설명회'에서 강석희 국제관계대사는 "중국은 경북 관광산업의 핵심 시장이며, 특히 동북부 지역을 겨냥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는 “경북이 NEAR 창설을 주도한 초대 의장국으로서 앞으로도 동북아 지방 정부 간 연대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보영 기자 sia007@kakao.com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 제15차 NEAR(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총회 참석

보도자료

by 황식 행정사 · 2025. 6. 15. 11:32



- NEAR 초대 의장국 경북도, 현 · 차기 의장국 대표와 공동협력 논의
국제우호도시대회 참가... 실질적 교류 확대 및 협력 기반 강화
- 2025 APEC 정상회의, 경북방문의 해 등 홍보 병행



경상북도는 제15차 NEAR 총회 참석 및 동북아 지방정부 간 교류 강화를 위해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랴오닝성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강석희 국제관계대사가 경북도를 대표해 참석했다.

문경일보 · 문경행정사 · 황식 해설사

이번 제15차 총회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열렸으며, 33개 회원 지방정부 대표, 한중일협력 사무국(TCS 사무총장, 주선양한국총영사) 등 14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졌다.

11일에는 회원 지방정부 대표단의 단체 접견이 열렸고, 이어 왕신웨이 랴오닝성장 이 주재한 환영 만찬을 통해 총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츠데노프 알렉세이 러시아 부랴티야공화국 수반 등 28개 지방정부 대표가 참석했다.

12일 오전에는 NEAR 사무국 주최로 '새로운 국제정세 하 동북아 지방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지사·성장 회의가 열렸으며, 강 대사는 한국 대표로 참석해 지방정부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 임병진 NEAR 사무총장

이어진 개막식에서는 랴오닝성장 이와 NEAR 사무총장 임병진의 개회사에 이어, 몽골, 일본, 러시아, 한중일협력사무국(TCS) 대표가 축사를 전했고, 강 대사는 이철우 도지사의 축사를 대독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과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는 동북아지방협력에서 NEAR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더욱 발전을 축원하는 영상 축사를 통해 총회의 의미를 더했다.

문경일보 · 문경행정사 · 황식 해설사

러한 NEAR 발전에는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상북도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대사는 이후 진행된 제1세션에 참여해 NEAR의 발전 방향과 경상북도의 역할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 강석희 경상북도관계대사

같은 날, 경북도는 선양 지역 교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와 국제교류의 가교로서 활약해 온 교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오후에는 강 대사가 선양 K11 쇼핑예술센터에서 열린 B2C 홍보 행사를 찾아 경북홍보관을 둘러보고, 현지 여행사 및 관람객들과 소통하며 경북의 관광 콘텐츠를 알렸다. 이어진 저녁에는 랴오닝성 당서기가 주재한 '국제우호도시대회' 환영 만찬에 참석해, 다양한 국가의 지방정부 대표들과 교류하고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경북도는 2023년 10월 랴오닝성과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데 이어, 2024년 4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리러청 랴오닝성 성장을 만나 '우호도시 교류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계기로 양 지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문경일보 · 문경행정사 · 황식 해설사

다.

강석희 경북도 국제관계대사는 “경북이 NEAR 창설을 주도한 초대 의장국으로서 앞으로도 동북아 지방정부 간 연대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

구독하기

태그

near, 경북도, 경상북도,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 제15차, 총회

관련글

더보기

김창혁 도의원, 「경상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
2025.06.15

경북도, 중국 동북부 관광시장 본격 개척
2025.06.15

경북도, 시니어 의사 활용해 지역 공공의료기관 ‘의료 공백 해소’ …
2025.06.15

경북도, 2025 경북 K-투어 페스티벌 in 서울 개최
2025.06.15

문경일보 · 문경행정사 · 황식 해설사

민원서류 대행대리/문화관광해설/국내여행안내사/010-3060-7489

구독하기